

칼빈의 신학과 설교

-설교자의 눈으로 읽는 『기독교강요』

최 영

1.

칼빈은 무엇보다도 설교자였고 성서주석가였다. 그가 1541년에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령집’에 따르면, 목사의 일차적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늘 말씀에 따른 훈계와 견책을 베풀며, 성례전을 거행하고 심방하는 일이었다. 성경강해와 설교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1541년 이후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매일의 과업은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을 설교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주일에 두 번, 평일인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각각 한 번씩 설교했다. 주중에는 구약성경을 자세히 강해했고, 주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약을 강해했다. 제2차 제네바 사역이 2년째로 접어든 1542년에 제네바 시민들은 설교를 더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고, 칼빈도 기쁘게 응했다. 1549년 10월에 제네바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날마다 설교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날부터 칼빈은 주일에는 두 번씩, 그리고 격주로 한 주간은 주간 내내 매일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모든 본문의 원어를 직접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르네상스 인문학자의 자세 그대로, 그는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큰 권위와 신빙성을 가졌다고 믿었다. 원문을 번역한 다음에는 곧바로 주석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에게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란 곧 해당 본문이 원래 상황에서 말했던 것과 원래 독자들에게 의미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이해과정을 거친 다음 ‘해설’ 작업, 즉 그 본문의 의미를 현재의 자신과 청중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설하고,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를 통하여 어려운 페이지를 해설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540년에는 그의 첫 번째 성서 주석인 『로마서주석』이 나왔고,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 주석을 발간되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의 저작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저작은 1536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1559년 마지막 판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증보 수정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의학의 저작으로 평가되는 『기독교강요』이다. 칼빈은 이 『기독교강요』에서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로 설득력 있고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이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의 신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칼빈 신학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성이 강조되고, 둘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특징적인 강조가 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신앙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가 있고, 넷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에 근거해 있다는 예정론에 대한 강조가 있으며, 다섯째,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

있다.

우리의 시대와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시·공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본 주제와 내용들에 관한 한 그와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기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강요』는 설교자들을 위한 빛나는 신학적 통찰, 아이디어, 주제와 내용들의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1)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의 상관성(Inst. I .1.1-3)¹⁾

칼빈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의 신학의 ‘변증법적 두 축’을 이룬다. 칼빈은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결코 인간의 삶 혹은 인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고려에서 언제나 ‘앞서는 것’,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였다(Inst. I .1.1-2).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본유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낮에 땅을 내려다보거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의 시력은 당장 그 큰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상의 사물을 볼 때에는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이 태양을 쳐다볼 때에는 아주 흐려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영적 은사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Inst. I .1.1.2). 이것은 해가 비칠 때, 빛을 차단하는 벽의 위치와 색깔, 두께와 높이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눅 5:8)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후자를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이다” (Inst. I .1.1.3).

2)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교리인 섭리교리(Inst. I .16-17; II .4)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보호를 고백한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은 성서의 여러 구절들(예 시 104:27-30), 특히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며(마 5:45),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들을 입히시고(마 6:26-30),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는(마

1) 여기서 필자는 생명의 말씀사가 펴낸 『기독교강요』를 인용한다. 『기독교강요』는 4권으로 되어있다. 제1권은 신론, 제2권은 그리스도론, 제3권은 성령론, 제4권은 교회론이다. 그런데 번역판은 제1권과 제2권을 합본으로 하여, 상, 중, 하권으로 되어 있다.

10:30) 예수의 가르침에서 증언된다.

칼빈에 의하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쇠의 관리자로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 한다(Inst. I.16.4). 그러나 여기서 불경한 사람들의 과변이 시작된다. “예컨대, 살인자가 한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고 하자. 그들은 이 살인자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든가, 혹은 간음죄를 범했다고 하자. 저들의 말대로 하면, 주께서 예지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이다. 부모 중 한 분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아들이 치료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의 죽음만을 기다렸다고 하자. 그로서는 영원 전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 해서 저들은 모든 범죄를 미덕이라고 부른다.” (Inst. I.17.3).

그러나 칼빈은 사악한 인간의 범죄의 책임이 하나님의 섭리에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들에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경솔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다 섭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절도나 간음 그리고 살인은 모두가 신적 의지의 간섭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저들은 묻는다.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쩌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쩌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정도로 방종과 정욕에 깊이 빠져 앞뒤 분별없이 행동한다... 도둑과 살인자 및 다른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정하신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이 저들의 범죄에 무슨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어쩌서 그런가?... 그것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악한 생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수단으로 해서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태양의 열로 부패되고 노출된 시체의 악취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싶다. 그것이 태양 광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 악취가 광선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이 악의 실질과 죄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다.” (Inst. I.17.5).

칼빈은 제2권 4장 2절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한다. 예컨대, 갈대아 사람들이 욥에게 행한 재난을 보자. 갈대아 사람들은 그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갔다. “그들의 행동이 악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모든 일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욥 1:12) 이 사건에서 사탄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고 말한다(욥 1:21). 어떻게 동일한 이 일을,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같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우선 행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다음에 행동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해결은 쉽다. 주의 목적은 재난으로 자기의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려는 것이었고, 사탄은 욥을 절망상태에 몰아넣으려고 애썼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했다. 서로 다른 목적이 행동의 특색을 뚜렷이 드러낸다. 방법도 그에 못지않게 다르다. 주께서는 자기 종을 사탄이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며, 심부름꾼으로서 갈대아 사람들을 택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주신다. 사탄은 독을 묻힌 창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자극하여 그 악행을 실천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으며, 목적과 방법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아무 흠 없이 빛나며, 사탄과 사람의 추악한 행동이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한다.” (Inst. II.4.2).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 칼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의 안전을 돌보신다고 증거하는 수많은 성구들을 인용한다(시55:22, 뵤전5:7, 시91:1, 스펴2:8, 창15:1, 렘1:18, 사49:25, 사49:15, 시91:12, 마10:29-31).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은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한다.(Inst. I.17.7) 칼빈은 요셉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는 즉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가장 깊이 새겨주실 것이다. 만일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계속 생각하였다면 그는 형들에 대한 형제의 우정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저들을 위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 45:7-8).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Inst. I.17.8).

실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칼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생활은 무수한 악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수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질병의 그릇으로서 사실상 몸속에 질병을 보유하고나 그 원인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파멸을 모면할 수 없으며 죽음에 둘러싸인 생을 보내야 한다. 추위를 만나든 더위를 만나든, 인간은 위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진대 우리는 이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몸을 돌리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대상은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배를 타보라.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발자국의 거리가 있을 뿐이다. 말을 타보라. 한 쪽 발이 미끄러지면 우리의 생명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도시의 거리를 산책해보라. 지붕 위의 기왓장과 같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기가 우리의 손에 있든 친구의 손에 있든 상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보는 사나운 동물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파멸을 위해 무장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즐겁게만 보이는 정원에 몸을 감추려고 해도, 거기에도 때로는 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옥은 계속 화재의 위협을 안고 있어 낮에는 가난해지지 않을까, 밤에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발은 우박과 서리, 한발과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모와 이에 따르는 기근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독과 복병, 약탈과 공공연한 폭행에 대하여는 여기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들은 때로는 집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멀리까지 따라다닌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Inst. I.17.10).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이 죽음의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다는 것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물이나 불이나 칼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된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Inst. I .17.11).

3) 은총과 선행(Inst. II .3)

칼빈과 개혁교회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고려에서 언제나 ‘앞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고려하였다. 인간의 책임적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행위를 앞서지 못한다.²⁾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자들에 맞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모든 선행에는 은총이 먼저 작용하며, 의지는 은총의 인도자로서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른다는 말이 있다.” (Inst. II .3.7). “대부분 우리가 처음 은총을 받은 후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그 뒤에 오는 은총과 협력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내가 대답을 한다면, 그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일단 의에 복종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전진하며 은총이 하는 일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 은총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준비태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나 시종 일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에 복종하는 심성을 만드시고, 다음에 그것을 함양하며 그 지조를 더욱 강화시켜 견인불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람에게는 동료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할 고유한 힘이 있다는 뜻이라면 그들은 가장 가련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Inst. II .3.11).³⁾

“무지한 그들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곡해한다. 그들은 바울의 이 발언을, 자신을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낫다고 말하면 너무 교만

2) 개혁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신앙, 의지, 책임성에 강조를 둔다.

3) 칼빈은 여기서 5세기 교회의 유명한 펠라기우스 논쟁을 상기시킨다. 이 논쟁은 교부 어거스틴과 수도원 수사 펠라기우스 사이에서 전개된 논쟁인데,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만 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자유의 지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자유, 곧 의를 위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자유는 죄의 힘에 예속되고 말았고, 인간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자유롭게 된다고 했다. 고대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축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견해를 교회의 정통교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에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던 자들이 반(semi)펠라기우스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한다는, 펠라기우스의 신인협력설을 약간 변조한 것이다. 이 사상이 중세 후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사상이었다.

하게 들릴 것 같았기에 바울은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총에 돌림으로써 자기의 발언을 시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 시정 내용을 보면, 자기를 은총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동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주의 은총이 자기와 함께 수고해서 자기를 동역자로 만들었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로를 전부 은총에만 돌리는 의미에서 이 수정을 한 것이다.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는 말했다... 만일 축자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는 은총이 자기의 동역자였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있는 은총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Inst. II .3.12).

칼빈은 이 은총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예로 들며 마무리한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같은 그 은총에 의해서 기쁨을 받으면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며,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며,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한다. 주의 거저 주시는 자비에 의해서 선으로 전향하며, 일단 전향하면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하게 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후에 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st. II .3.14).

4) 기독교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부정(Inst. III .7-8)

그러나 칼빈에게서 은총의 강조는 결코 인간의 책임적인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제3권 성령론에서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우선 기독교인의 삶의 현실을 직시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생활에서는 복음만 살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복음적 완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에서 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에 대한 경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실을 요구하신다(창17:1, 시41:12)... 그러나 지상 감옥인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것을 밀고 나갈 충분한 힘이나 충분한 열의가 없다. 신자의 대부분은 심히 약하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비록 짧은 거리일지라도 매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출발은 상서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에서 다소라도 부단히 전진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중단치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성공이 사소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오면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신의 악행을 변명하지 말고 종점을 향해서 계속 분투 노력하라.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을 벗어나고 그 분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다” (Inst. III .6.5).⁴⁾

4) 역사적으로 장로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죄를 범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그러나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으로 ‘자기부정’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소유를 잊어버려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롬 14:8; 고전 6:19참조).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해독(害毒)이듯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아는 체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Inst. III.7.1). 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고후 10장 5절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 시킵니다.”

계속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건만, 철학자들은 이 변화를 몰랐다. 바울은 이것을 ‘심령으로 새롭게 됨’이라고 불렀다(엡 4:23). 저들은 이성만을 사람 안에 있는 지배원리로 설정하고 이성의 소리만을 따르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은 이성에게 성령에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사람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며 지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갈 2:20)” (Inst. III.7.1).

이러한 ‘자기부정’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갈 6:10),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대한다는 것은(마 5:44)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전연 반대되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확실히 한 가지 길 밖에 없다. 우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일이면 우리는 예배시에 죄를 고백한다.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및 하나님과의 평화의 선물을 받았지만(롬 5:1)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점을 잘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감리교인과 여러 침례교 전통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믿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결과로서 선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이전 단계가 될 사랑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예컨대,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서 7장 14-25절에서 묘사되는 신자가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적절한 갈등을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칼빈 등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중생한 자에 관한 것으로 본다. 장로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롬 8:29). 그러나 우리는 이 생 동안에 완전을 이룰 수는 없다고 믿는다. 우리의 완전은 우리의 ‘영화’,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함과 더불어 온다. 오직 그때만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완전함의 충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악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그 길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의 죄를 말소하며 삭제할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 그들을 사랑하며 꺼안게 만든다” (Inst. III.7.6).

그러나 윤리적이고 당위적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런데 사랑의 의무를 다 실행하고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외면적으로는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진정한 의무 이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랑한 얼굴이나 다정한 말로 유쾌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우선 그들은 자기가 도움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두고 그의 불행을 자기가 당하며 견디는 것같이 동정해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은 교만이나 비난으로 자기의 의무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Inst. III.7.7).

칼빈은 자기 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번 더 반복한다. “우선 우리가 현세 생활에서 평안과 평온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의 뜻에 맡기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일임해서 길들이며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재산과 명예를 탐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재물을 쌓으며,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듯한 일에 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욕망은 날뛰며 중단될 줄 모른다.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살림과 낮은 가문과 이름 없는 처지를 우리는 경탄하리만큼 무서워하고 미워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자극을 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은 야심이나 탐욕의 목표에 도달하며 한편으로는 빈곤과 비천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노력해서 지칠 정도에 이른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취할 길은 하나 있다. 첫째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희망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심과 확신을 품고 주께서 주시는 복에 마음을 맡기며 거기서 안식을 얻으라... 우리의 수완이나 노고도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의 축복이 있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기쁜 결과가 될 것이다. 주의 복이 전연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광과 재산을 얻을 수 있다(사악한 자가 굉장한 재산과 명예를 쌓아올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티끌만한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 (Inst. III.7.8).

자기부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일이 잘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주께서 정하신 우리의 처지에 도달하도록 한다면, 우선 우리는 사악한 행동, 책략, 간계 그리고 탐욕 등의 수단으로 재물을 움켜잡으며 지위를 강탈하려고 날뛰어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되고 우리의 순진성을 버리게 하지 않는 사업만을 하게 될 것이다. 사기와 강탈과 그밖의 악한 술책을 쓰는 곳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도움이 임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요컨대 여기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의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술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자기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일이 잘 될 때에 그것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근면, 노력, 행운 등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

신 일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자기 일은 진척이 미미하거나 심지어 후퇴하더라도 그는 평온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진한 상태를 참고 견딜 것이다. 자기가 얻은 보통 정도의 성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세속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에 비하면, 그의 마음은 더 평화로울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는 최고의 부귀보다 더 위대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위로는 그의 구원이 될 것이므로 그는 자기의 사업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윗의 태도가 이러하였다(참고. 시 131:1-1) (Inst. III.7.9).

5) 내세에 대한 명상(Inst. III.9; Inst. II.10.10-13)

칼빈은 또한 제3권에서 “내세에 대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그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바로 여기서 칼빈의 윤리학의 근본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칼빈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따라서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그리스도 자신이 요구하신 제자적의 두 가지 규범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영혼 전체는 육의 각종 유혹에 빠져 지상에서의 행복을 구한다. 주께서는 이 악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 그 허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으로, 강탈이나 기타 피해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들이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은 추방으로, 혹은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신다. 그들이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즐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며 교만을 꺾으신다. 이런 점에서 그들을 관대히 다루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허영심으로 부풀고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그들에게 병과 재난을 보내어, 이 모든 좋은 것은 없어지는 것,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Inst. III.9.1)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여 세상을 경멸하고 전심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를 위해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다는 것은 유식한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제일 잘 아는 속담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생 불사할 작정인 듯 모든 일을 시작한다. 시체를 묻거나 묘지를 통과할 때에는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철학을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우리의 철학은 일시적이어서, 돌아서면 곧 사라지고 전연 기억이 없다. 극장에서 좋은 장면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박수갈채와 같이 결국 증발하고 만다. 죽음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죽을 운명까지도 우리에게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우리는 경솔하게 지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Inst. III.9.2)

그러나 칼빈은 결코 존 번연의 『천로역정』 같은 단계적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돼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실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그보다 작은 증거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받는 은혜이다. 이렇게 현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듯이 무시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Inst. III.9.3)

또한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다.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한다. 바울이 육신의 질곡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던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구속되기를 갈망하여 탄식한 것은 사실이다(롬 7:24).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다(빌 1:23-24). 그는 생사간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롬 14:8)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그것을 늘 명상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영생불멸과 비교해서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현세 생활을 경시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 (Inst. III.9.4)

“그들이 머리를 높이 들어 모든 지상적인 것을 초월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며 깊은 평화를 즐기며, 호사스러운 재물을 자랑하며, 온갖 환락에 젖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 때문에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하며, 그 밖에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신자들은 이런 재난까지도 쉽게 견뎌낼 것이다. 이는 주께서 그의 평화의 나라로 그의 신실한 백성을 영접하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그 날에 주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계 7:17), ‘영광과... 환희의 옷’ (집회서 6:13)을 입히시며, 형언할 수 없는 그의 희락의 단맛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자신과의 송영한 친교에 들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창성한 악한 불신자들은 철저히 몰락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다. 이 위안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이 세상의 허망한 위안에 사로잡혀 멸망할 것이다. 예언자까지도 악한 자들이 현세에서 창성한 것을 너무 깊게 생각했을 때 거의 실족할 뻔했노라고 고백한다(시 73:2-3)...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이겨낼 것이다.” (Inst. III.9.6, 내세에 대한 명상과 관련하여 Inst. II.10.10-13을 참고).

6)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와 중생(Inst. III.1-16)

의인론은 신앙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

심적인 교리이다. 칼빈의 의인론의 내용은 루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루터의 입장과 달리 칼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은 또한 이 칭의가 기독교인의 중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칭의의 은혜와 중생은 서로 다른 일이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Inst. III. 11. 1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방법은 그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므로, 그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한 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Inst. III. 16. 1) 물론 성화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껏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발전을 보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칭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처럼 처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완벽하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루터와 그의 제자들에게서 보게 되는 일방적인 칭의 강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위로와 소망의 교리인 영원한 선택(예정)(Inst. III. 21)

예정론은 개혁교회의 독특한 교리이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의인론이 루터교회에서 차지하는 것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칼빈은 목회적 차원의 관심에서 이 교리에 도달하였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어 낸 답변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선택 또는 결정하셨다(롬 8:28-30)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수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된다는 것같이 불합리한 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 흑암 속에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 아니라, 그 심히 향기로운 열매까지도 알려진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Inst. III. 21. 1)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Inst. III. 21. 5).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서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 이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머리에 접붙임을 받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다” (Inst. III. 21. 7).⁵⁾

5)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의 선택은 안전하다. 장로교인들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믿음 안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임을 지적하는 신학적 이해이다. 우리의 인생 중에 죄를 범하는, 그것도 심각한 죄를 범하는 시간과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방황하여 헤매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상당히 긴 기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애초부터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실족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완전하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궁극적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좋다는 방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것은 자비로 우리를 구원에 부르셨고 전

칼빈이 예정을 말할 때,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예정론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정확히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안에는 죄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호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펠라기우스적인 인간관과 구원관에 맞서는 어거스틴적, 바울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고, 그로써 기독교 자체를 왜곡시킨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기획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III.

칼빈은 1541년의 『기독교강요』 불어판 서문에서 이 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열쇠나 입구와 같은 것” 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바르트는 개혁신교회에서 교리는 무엇보다도 단순히 성서의 해설을 의미하고, 칼빈 자신이 그 첫 번째 본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기독교강요』에서 그 전형을 찾는 개혁신교회의 교리가 단순히 성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이외에 다른 어느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강요』는 설교자에게 귀중한 설교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약 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은 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강요』를 손에 들고 읽는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의 성서해석을 위한 지침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1983년에 펴낸 『장로교회의 성서 이해와 사용』, 그리고 『성서의 권위와 해석』이 두 가지 문서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하라. 루터는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요람” 이라고 불렀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이야기의 핵심 초점이다.

2) 성서의 분명한 본문에 초점을 두라.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뚜렷하게 상징적이며, 또 다른 본문들은 당시의 특정 상황과 관습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성경의 책들을 잘 해석하고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와 성경 내 문서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 필요가 있다.

3) 해석 및 하나님의 메시지의 적용을 위해 성경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라. 성령께서는 성경 본문 안에서 이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과 성경말씀의 적용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항상 중요하다.

4) 교회의 교리적 총의나 ‘믿음의 규정’ 을 잘 따르도록 하라. 교회는 여러 세기에 걸쳐 성경을 해석해 왔다. 교회가 성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온 것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 또한 해석을 하면서 다른 개혁 전통의 교회들의 신경 및 고백들과 더불어 고대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경과 고백들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면서 마침내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모든 해석이 ‘사랑의 규정’에 맞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서해석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견해나 행동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후에 신학자들은 ‘사랑의 규정’이 우리를 위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6) 성경 해석이 진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해석을 돕는 최선의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에는 특별한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인 많은 보조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

7)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특정 성경구절들을 해석해야 한다. 성경 해석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움직여 가야 한다. 성서 전체를 포괄하는 큰 메시지들이 특정 성서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개인적 해석이 광범위하면서도 분명한 성서적 주제들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경우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성서해석이 자동적으로 최선이 되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계 2:7)을 듣도록 열어 줄 수 있는 장로교적 관점을 향해 움직여 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